

지금, 가장 구스범스 다운 여름을 만나라!

구스범스®



22 고스트 캠프의 비밀 R.L. 스타인 지음 · 조성흠 그림 / 이원경 옮김

* 2016.7.18 발행 / 140*205 / 176쪽 무선제책 / 8,500원 / ISBN 978-89-6548-334-2 74840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구스범스 캠프에선 아무도 믿지 마라!!

***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부 판매

** 기네스북 등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2위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책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2014년 여름부터 대한민국 18만 어린이를 호러의 매력으로 이끈 「구스범스」 시리즈. 드디어 22권이 출간되었다. 전 세계 4억 2천만 어린이의 사랑을 받은 이 시리즈는 소름 돋는 오싹함, 충격적 반전 그리고 어린이의 삶에 밀착된 소재가 매력 포인트다. 이번에 새로 나온 『구스범스 22. 고스트 캠프의 비밀』도 어린이의 여름 방학 시기에 딱 알맞은 소재로 찾아왔다.

여름 방학이 되면, 야외에 나갈 기회가 많아진다.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가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집에 놀러가 밤을 보낼 일도 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책의 주인공 형제는 그런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름 방학을 맞아 야영 캠프에 참가하게 된 두 형제. 부모님 없이 맞이한 낯선 캠프 생활은 두근두근 기대감이 넘치는 한 편, 자꾸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 불안하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캠핑장은 점점 무서워진다. 과연 이 캠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검은 안개가 캠프장을 감싸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해리와 알렉스 형제는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깊은 숲속에 도착한다. 이곳은 형제가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될 '밤안개 캠프'.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들과 유쾌해야 할 캠프인데 이곳은 도착했을 때부터 어딘가 음산하다.

걱정은 잠시. 해리는 매력적인 소녀 루시를, 알렉스는 유쾌한 친구 엘비스를 만나 점점 캠프 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런데 캠프장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이들의 숙소 침대 밑에 나타나는 끈끈한 파란 점액들, 불길 속에서도 화상 하나 입지 않는 루시 그리고 검은 안개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아이들…….

이 모든 게 해리와 알렉스의 착각일까? 아니면 이 캠프장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점점 불안해지지만 하는 캠프 생활.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 아이들은 고대하던 숲속 하룻밤 야영을 떠난다. 숲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해리와 알렉스는 이 캠프의 감춰진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해리와 알렉스는 캠프의 함정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루시와 엘비스 중 두 형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마지막 장까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 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조성흠

홍익대학교 영상영화과를 졸업했다. 잡지 『푹』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이렌』, 『세상의 문 앞에 선 아이』, 『마법의 나날들』, 『에이, 바보』, 『잃어버린 일기장』 등 많은 책에 그림을 그렸다.

옮긴이 이원경

경희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구스범스」 시리즈, 『말 안 하기 게임』, 『쌍둥이 바꿔치기 대작전』, 『황금 열쇠의 비밀』, 『행복한 목수 비버 아저씨』 등이 있다.